



작가를 위한 차별화된 미술시장 문호를 열다



지난해 벅스코에서 개최된 (사)부산미술협회 주최 2020 '제10회 BFAA부산아트페어' 및 '제40회 부산미술제' 개최식 장면.

소통하는 미술시장

(사)부산미술협회는 오는 10월 1일~4일까지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1 제10회 BFAA아트페어」를 개최한다. KBS부산방송총국과 (사)부산미술협회가 공동주최하고 BNK부산은행이 특별후원하는 이번 BFAA아트페어는 작가 중심의 미술시장을 마련함으로써 부산 지역미술을 활성화시키고 관람객 참여형 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교류하는 행사를 만들어나간다. 2020년과 동일하게 2021년에도 조직위원장으로 센텀의료재단 박종호 대표이사 선임되었고 운영위원장으로 (사)부산미술협회 안정연 부이사장이 선임되어 행사를 진행해나간다. 또한 350여명의 미술인이 참여하여 2,000여점이 넘는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총 105개 부스전과 3개의 특별전을 기획하였다. 부산지역미술대학과 연계하여 신진작가의 미술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로써 청년작가특별전 「젊은시선은 부산의 청년작가를 발굴·지원하여 양성하기 위한 부산미협 야심찬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민 참여형 공모전인 「부산사랑10가지 순회시민예술제」의 그림공모전 수상작을 위한 부스와 지역민을 위한 소품전을 마련하는 등 의미있는 특별전을 기획하여 많은 이들이 즐겁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듯 특별전 참여주체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BFAA아트페어를 통해 부산미협이 지향하는 바를 뚜렷이 볼 수 있다.

이처럼 75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 미술단체인 부산미술협회(박태원 이사장)는 “BFAA아트페어를 통해 부산미술의 현

주소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침체된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일으키며 부산 미술인의 창작열을 고취시켜 부산미술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BFAA 아트페어의 특수성

미술협회는 2012년 “BFAA 2012 아트페스티벌”이라는 명칭으로 BFAA아트페어의 서막을 열었다. 당시 미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부산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아트페어를 개최하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대표 미술축제로써 지역미술인들의 다양한 현대미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올해로 10년째 그 축제의 장을 개최하여 지역미술인들을 위한 판로를 제공하는 미술시장을 연다. 이는 타 아트페어와 차이를 보이며 BFAA아트페어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합리적인 부스비로 미술인의 부담을 줄였다. 부스 1개에 천만원이 넘는 다른 아트페어와는 엄연히 차이를 보인다. 주최가 어디며 판매 수익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부스비 산정 관계는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BFAA아트페어는 미술인이 직접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판매수익은 고스란히 작가가 가진다. 타 아트페어처럼 중간 매개자가 작품금액을 정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제판일치로써 수수료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작품을 구매 혹은 판매되는 BFAA아트페어만의 특수한 성격이다. 이로써 작품 구매자는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작품을 감상,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셋째, 갤러리 소

속 작가만이 아트페어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작가 스스로 직접 부스참여 신청서를 주최 측에 제출하는 형태로써 참여 미술인의 폭이 넓고 회원, 비회원 관계없이 작품 활동을 하는 미술인이면 누구든 미술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산미협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BFAA아트페어는 미술인복지적인 성격을 띤다.

부산시의회의 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산시로부터 지원받던 BFAA아트페어 사업비를 안타깝게도 2021년에는 지원받지 못했다. 이는 미술시장을 향한 부산시의회의 굵지 않은 시선 때문으로 보여진다. 올해 초 2021 BFAA아트페어 예산지원을 목적으로 한 부산시의장과의 미팅에서 BFAA아트페어 운영위원회는 “개인이 장사를 하는데 부산시가 꼭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부산시의회의 답변을 받았다. 이 같은 답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부산미협과는 상반되는 입장으로 지역미술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야기된 결과라고 보인다. 시장의 활성화는 서민경제의 성장과 직결되는 현상으로 전통시장과 미술시장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읽어볼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매년 엄청난 금액의 국비를 시장에 지원하고 있다. 미술인을 경제의 한 구성원으로 볼 때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그 시장의 형태는 매

우 다양하다. 백화점, 전통시장, 구멍가게, 도·소매, 온라인쇼핑몰, 직접 판매 등 시장의 형태는 다양하고 그 시장을 찾는 소비자 또한 다양하다. 백화점에서 유명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있고,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가격을 흥정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있다. 이렇듯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시장의 형태는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미술시장에 대입하면 지금 부산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아트페어는 각각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미술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 의회만은 이 같은 논리를 부정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부산미협은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부산지역미술인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이를 위해 미술시장 활성화와 전시장 마련을 요

두 번째로 관공서다. 시상금 명분으로 미술인에게 지원을 하고 우수작품을 기관의 재산으로 등록하지만 미술작품을 1년씩 대여하는 형태로 작품을 소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정 기관에서는 저렴한 대여료를 지급하면서 같은 작품을 3년째 대여하는 등 미술인에게 분통을 사기도 한다. 세 번째로 기업인이다. 세금혜택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매하는 등 기업이미지와 CEO의 취향에 따라 특정 미술인의 작품으로 연결된다. 이 세 가지의 경우는 특정인을 위한 협소한 미술시장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비의 주체는 일반시민들이다. 각 가정에 작품이 진품 혹은 복제품 어찌면 어린 아이들의 작품이 액자에 걸려 방 한쪽 편에 전시되듯 미술품이 소비된다. 일반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갤러리 혹은 아트페어를 방문하여 마음에 드는 작품을 보고 구매하기 위해서 판매금액을 확인하면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한다. 이처럼



2020 제10회 BFAA부산아트페어 및 제40회 부산미술제에 참가한 갤러리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구한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또한 이에 응하며 부산시장지사사항으로 부산지역 마켓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지역미술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중 부산시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고립으로부터 미술인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부산시는 미술인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

미술소비 시장, 부산미협의 지향점

미술작품은 매년 소비된다. 하지만 미술작품은 매년 소비된다. 하지만 소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미술시장이 얼마나 협소한지 그 실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미술관이다. 매년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구매하지만 과연 부산지역 미술발전을 위해 작품을 구매하는지는 의문이다.

“일반시민 모두가 문화를 경험하고 향유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미술시장을 미술인들은 기다리고 있다”며 부산미협이 부산의 미술인을 대변하고 있다.

미술작품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구매자와 이를 충족시켜 줄 미술인이 만날 수 있도록 미술시장을 형성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BFAA아트페어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부산미협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술인에게는 복지의 차원이자 시장의 개척이고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다며 2021 BFAA아트페어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변화될 미술시장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글 · 권오혁(학술평론위원)

명사칼럼

문화예술 허브 '부산', 갤러리를 품은 부산은행



안감찬
부산은행 은행장

과거 의식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소수의 특권층만 감상하고 유통되던 미술은 현대에 이르러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이 함께 감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르이자 가장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전세계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지금, 누구에게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예술이 생활권에 자리 잡히는 것은 모든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하나의 목표점이 되고 있다.

부산 동구 초량전통시장 옆을 지나다 보면 <초량생활의 숲>이라는 조형물을 볼 수 있다. 이 조형물은 집에서 쓰던 프라이팬, 배에서 쓸 법한 공기통, 가스통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멀리서 보면 조각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증 받은

재활용품에 작가의 예술성을 더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됐다.

이렇듯 예술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생활권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으며 모두가 함께 예술을 즐기며 그들의 철학과 감수성을 발견하고 상상력의 확장과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허브를 꿈꾸는 부산은 BAMA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BFAA 국제아트페어, 부산미술대전, 부산예술제, 국제청소년예술축제 등 다양한 지역 대표 예술문화컨벤션이 개최되며 점진적인 문화발전을 이루었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부족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 등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산은행은 젊은 문화적 예술 도시를 만들고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의지와 지역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도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과 문현동 부산은행 본사에 BNK갤러리를 개관했다. 개관 이후 '흰 소로 유명한 이중섭의 작품, 단원 김홍도의 작품 등 고미술에서부터 근현대 미술까지 이르는 작품 전시 기획전을 열고 있다. 또한, 신진 작

가들의 지속적인 작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대관 전시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180여회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BNK갤러리는 지역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세계를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예술적 감성을 함양코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에서 활동중인 전업 작가 및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전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창작활동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전업예술인의 창작 의지를 높이고자 한다.

나아가 부산은행은 지역의 차세대 청년 미술가 발굴 및 예비 작가인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과 성장을 위해 2013년부터 격년제로 청년작가 미술공모전을 개최하여 전시와 작품 지원을 통해 사회로 진출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환경 주제 어린이미술대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게 현대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주제를 기획, 전시함으로써 도



부산은행 본점 1층 아트갤러리.

시재생, 친환경 등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 아트뱅크로서의 사회·문화적 입지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부산은행은 대중들에게 미술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쉽게 다가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과 더불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4월, 은행장 취임식에서 지역사회 의 新르네상스 시대 선도를 강조한 바 있다. 암흑의 시대 중세를 극복하고 문화예술을 꽃피웠던 르네상스 시대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화예술 부흥이 우리 곁에 하루 빨리 다가오길 기대해 본다.

제47회 부산미술대전 접수시작

9월 6일 서예, 문인화
10월 21일~22일
그외 장르
10시부터 17시까지

전국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부산미술대전'은 지역단위 전국공모 행사다. '부산미술대전'은 1975년의 시작으로 부산광역시와 사)부산미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해 부산미술문화의 진취성을 고양시키고 창의력과 재능이 넘치는 신인 작가 발굴을 목

적으로 매년 미술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47회째를 맞이하며 변함없이 전국 공모로 행사가 열린다. '2021년 제47회 부산미술대전' 공모는 국적 제한 없이 접수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미술인들이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 판화, 학술·평론, 영상·설치, 문인화, 수채화, 민화·불화 총 12개의 부문으로 출품이 가능하다. 1차, 2차 심사를 통해 대상, 부산은행장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특선, 입선

을 시상할 예정이다. 1차 작품사진 접수기간. △9월 6일(월) 서예, 문인화 10시부터 17시까지 부산미술협회 접수. △10월 21일(목)~22일(금)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판화, 학술·평론, 영상·설치, 수채화, 민화·불화 10시부터 17시까지 부산미술협회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http://www.bfaa.or.kr>) 협회소식 참조 또는 전화(051-632-2400)로 문의하면 된다.

사)부산미술협회 2021년도 제3차 이사회 열려

사)부산미술협회 2021년도 제3차 이사회가 7월 23일 오후 6시부터 6시 50분까지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렸다. 재적 이사 총 59명 중 총 36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늘의 작가상」 수상기념전 결과 보고 △2021 제10회 BFAA 아트페어, 제41회 부산미술제, 제47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총3개의 주요 사업 접수현황 및 개최일정 보고 △「부산미술」소식지 비회원 구독 및 광고료 보고가 있었다. 이후 총 6건의 의안이 접수, 상정됐다. △안건1 제35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사업결산(안) △안건2 제59회 부산예술제(해외자매 도시미술교류전 & 부산미술대작전) 기획(안) △안건3 가제) 「부산예술 하랑하랑축

제」 기획(안) △안건4 2021년 「지정기부금단 체」신청을 위한 정관 수정 건 임시총회(안) △안건5 2022년 전시장 대관(부산갤러리, 금련산역 갤러리) 건(안) △안건6 신입회원 인준, 제명회원 복권, 장애회원 심의(안) 안건6인 탈퇴회원 총 2명과 장애회원 총 1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신입회원 인준심의로 총 15명 중 13명 승인, 2명 각분과에 자료 심의가 되지 않아 다음 이사회로 보류됐다. 이번 회기에 승인된 신입회원 명단. △서양화 6명 : 이소영, 이해영, 정정숙, 조예라, 최명아, 최영애 △한국화 2명 : 김복일, 권현희 △공예 5명 : 김민서, 김지원, 홍민수, 왕현민, 안병해

갈매랑 축제, 「부산 미술의 원천을 열다」 전

사)부산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갈매랑 축제에 사)부산미술협회는 '부산 미술의 원천을 열다' 전시명으로 9월 2일부터 9월 7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갈매랑 축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바다의 새 갈매기의 갈매와 파도, 물결을 의미하는

한자 음의 랑(浪)을 결합한 것으로 예술의 울림을 전하고 함께 날아오르는 의미이다. 부산미술협회는 부산화단을 이끄셨던 75세 이상, 입회 35년 이상 되신 원로작가들을 초대해 그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17회 송혜수 미술상 김남진 수상기념전

'제17회 송혜수 미술상'을 수상한 서양화가 김남진의 수상 기념전이 9월 14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금련산역 갤러리에서 열린다. 시상식은 9월14일 전시오픈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김남진 작가 작품은 점으로 짙어 붙여내어 이미지를 구현해 낸듯하지만 실제 재료

에 물리적 흠집을 파내어 만들어진 표현으로 이중적 의미를 만들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한 회화의 형식적 기법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작업 형태가 나무판을 캔버스에 붙여 드릴로 형태를 파낸 뒤 채색을 하는 일명 '부조회화' 작업이다.

부산 미술인 축제, 제41회 부산미술제 개최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전시 열릴 예정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다채로운 감상을 즐길 수 있는 전시가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부산미술인들의 축제 '제41회 부산미술제'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와 사)부산미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미술제 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부산미술제'는 1981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며, 지역 최대 미술 축제로서 미술인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해 볼 수 있는 자리이다. '제41회 부산미술제'는 사)부산미술협회 회원 426명,

비회원 107명 총 533명이 평면(회화), 디자인, 입체(조각), 공예, 영상, 설치, 행위 미술, 서예·문인화 등 다양한 장르의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창작활동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산 작가들이 참여한다. 시민들에게 폭넓은 미술세계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

이 작가를 주목한다

서양화가 **염진욱**

사유성(思惟性)과 독창성으로 자신만의 동환적인 색을 담아낸다

지난 7월 하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해운대에 위치한 서양화가 염진욱(1964~)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작품과 작가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작품으로부터 그의 인품과 같이 순수하며, 포근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마 그림의 사유성(思惟性)과 독창성, 그리고 온화한 분위기에서 오는 매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염진욱은 부산대 미술대학을 다니던 학창 시절부터 진취적이고 전위적인 작업을 추구했던 작가다.



Memory of mountain _116,7 x 81cm_oil on canvas, 2012.

그는 당시 주변의 사회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미대생들의 전위적 스터디가 활발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예술활동에 자양분이 된 것 같다고 회고한다. 피할 수 없는 자신과의 싸움, '화가로서의 염진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작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염진욱의 관심은 산이다. 변하지 않지만 변하는 산, 말없이 말을 하는 산, 무심한 산의 기억과 마음을 그리는 작가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다. 눈만 뜨면 보이는 산, 누구나 알고 있는 산을 주제로 한다는 것은 어쩌면 작은 가능성을 믿고 몸을 던지는 용감한 천재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염진욱은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는 각오와 용기로 시작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날마다 보는 그러한 평범한 산에서 남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산의 특별한 면, 신비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일반인들은 산을 큰 형상으로만 보았다면 그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

기를 계속한 것이다.

결국, 산과 소통할 경지에 이르렀고,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미묘한 모습, 그들이 하는 말과 전하고자 하는 뜻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래서일까 그의 작품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가 그린 산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 속세를 벗어난 느낌, 고요 속에서 메아리를 듣는 느낌을 받는 것 같다.

염진욱은 그의 느낌, 이런 신비스러운 느낌을 '경이로운 충격'이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산의 미묘한 모습을 혼연일체가 된 상태로 보게 된 것이고, 그러한 발견을 충격에서 오는 경험이라 말했으며, 그 충격을 즐겼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러한 충격적 느낌에 빨려 들어가 정신없이 그려냈다는 의미일 텐데, 그 충격적 느낌은 작가 자신의 것일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남이 보는 산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가 받은 충격적 느낌을 그리는 과정, 작업 과정에서 작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자신도 알 수 없기에 재미있고 궁금하고 또 혼돈의 과정 그 자체를 즐긴다고 한다. 이것은 미리 스케치한 것을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면서 느낌이



Memory of mountain _162 x 112cm_oil on canvas, 2014.

나 순간, 순간을 펼쳐나가는 창의적 작업임을 말한다. 따라서 같은 작품이 없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일 뿐이다.

염진욱은 우리가 무심히 보는 일상의 평범한 산을 빛, 그림자, 그리고 바람으로 가공하여 보석으로 빛어 내놓는 작가이다. 그의 산 그림은 색 덩어리의 산, 봄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보리밭 같은 산, 잎새들이 속삭이는 동심의 산 등 다양하나 그 내면은 모두 고요하고 순수하며 어떤 몽환으로 가득하다. 그가 그려낸 산은 어느 것 하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신비의 산이며 우리에게 힐링과 삶의 용기를 주는 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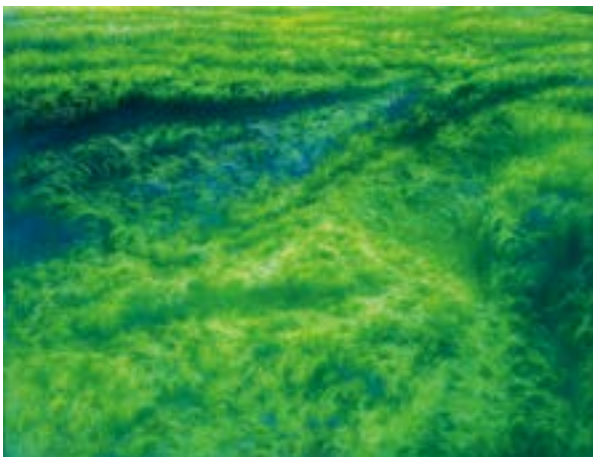
그는 그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

는 것과 같이 남달리 사유가 깊고 탐구심이 강한 작가이다. 그와의 대화에서 그는 이미 어떤 사유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목해 봐야 할 우리 부산의 작가이다.

글 · 정연은(학술평론분과)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졸업
동대학원 서양화 전공 졸업
개인전 11회, 단체전 다수 참가

작품소장: 부산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대구은행, 부산시청, Faberge Museum (Russia), The Miral Management (UAE)



Memory of mountain _130,3 x 193,9cm_oil on canvas, 2020.



Memory of mountain _112 x 162cm_oil on canvas, 2017.



Memory of mountain _112 x 162cm_oil on canvas, 2018.

민간법인에서 공익법인으로서의 첫 걸음

사)부산미술협회는 지난 7월 23일에 열린 2021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한 정관개정(일부) 건'이 상정되었다. 이날 이사회를 통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정관개정(일부)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선정을 공익법인 법을 기준으로 심의함에 따라 현재 민간법인인 미술협회의 정관 제3

조(목적)와 제4조(사업) 4항을 수정하여 공익법인에 맞도록 수정해 나간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한 미술사업에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은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이 있을 것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3개월 이내에 법인 및 국제청 홈페이지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할 것 ▶해당법인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이다.

사)부산미술협회, (재)부산문화재단 메세나 사업에 선정

사)부산미술협회(이사장 박태원)는 (재)부산문화재단 2021 메세나 활성화 지원 <메세나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었다. 부산미술협회는 기업 매칭으로 (주)국지의 기부를 받아 (재)부산문화재단으로부터 총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술시장을 지원한다.

부산미술협회는 기부협력업체를 통해 BFAA아트페어를 홍보하

고 인사를 초대하여 작가와의 매개역할을 하며 기업 내 직원에게 아트페어를 홍보하고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증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작품판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후 「부산미술」소식지를 통해 부산 미술인의 전시소식을 전하는 등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축제의 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고

서양화분과 **황상업** 원로회원 / 8월 24일(화)

제20회 오늘의 작가상 본상 수상기념전 보랏빛세상으로 이야기를 만들다

7월 6일에서 11일까지
금련산역갤러리에서 열려



백성흠 작가.

성한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미술인을 발굴 및 포상한다. 오늘의 작가상은 사)부산미술협회 회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부산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에 제정되었다.

올해 2021년도 제20회 오늘의



꽃비내리는 날, 피레네_100호변형_oil on canvas, 2020.

사) 부산미술협회(이사장 박태원)는 투철한 작가 정신으로 왕

작가상 본상을 수상한 백성흠 작가의 수상기념전이 7월 6일부터 11일까지 금련산역갤러리에서 성황리 열려 막을 내렸다.

7월 6일에 열린 오프닝에는 부산미술협회 박태원 이사장, 오늘의 작가상 운영위원장 안정연 부이사장, 최상철 부이사장, 오늘의 작가상 권순교 심사위원장 등 참석하여 제20회 오늘의 작가상 본상 시상식과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많은 우중에도 불구하고 원로서양화가 심재중, 백낙효, 정광화, 이영길, 사진가 정봉채, 한국미협 경남 지회장 천원식과 70여명의 작가 및 부산미술협회 회원 등이 참석해 백성흠 작가의 수상 기념전을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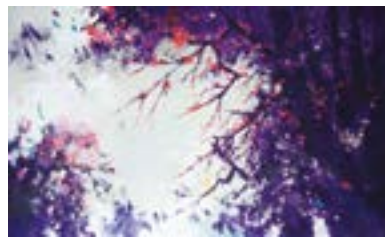
백성흠 작가는 세계 곳곳을 방문하며 느낀 이미지와 감정을 스케치하고, 이를 마치 꿈과 현실이 뒤섞인 몽환적 분위기로

화폭을 담아내는 작업을 한다. 작가가 자신만의 느낌대로 재해석한 작품은 평면 회화에서 이어온 탐구의 여정을 한눈에 보여준다.

이번 수상 기념전에는 2019년 스페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800km를 2개월여에 걸쳐 현지 스케치하고,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제작된 '봄날은 온다' 연작을 100호작품부터 6호까지 80점의 유희작품으로 볼 수 있었다.

풍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담긴 그의 풍성한 작품은 다채로운 볼거리를 관람객에게 선보였다. 그의 시그니처 컬러인 보랏빛이 전시장을 가득하게 물들었다.

그는 21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아트페어, 백 여회의 기획초대 및 단체전을 참여했다. "긴 시간 작가로서의 길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온 결과로, 2021오



봄날은 온다, 피레네_100호_oil on canvas, 2021.



몽마르트르 파리_4호변형_oil on wood board, 2021.

늘의 작가상 본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돼, 더 없는 영광이자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축하라 생각하고, 더불어 고마움의 인사를 미술관계자 및 부산미술협회와 회원들에게 전한다"고 수상소감을 말하며 "늘 이 같은 노동을 전제로 한 작가로

서의 삶에서, 꿈꾸었던 내 그림을 만나기 위해 내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작가만의 독창적인 화풍으로 작품 세계에 몰두하겠다는 작가의 정신을 표출해냈다.



산티아고 가는길_6호_oil on canvas, 2020.

- 개인전 21회(서울, 부산, 대구, 창원, 울산, 거제, 통영)
- 개인초대전 16회(서울, 부산, 대구, 창원, 울산, 거제, 통영)
- 단체전 다수 참가
- 국내외 아트페어 BAMA, KOAS, BFAA 및 기획초대전 다수
- 작품소장 : 부산성모병원, 천주교
- 히늘공원, 희명병원, 동아미술관 등 다수
- 한국미협회원, 부산미협회원, 구상작업미술가협회회원
- baikssi@hanmail.net

제20회 오늘의 작가상-청년작가상 수상기념전 GOLDEN AGE...인간 내면의 욕망과 욕구 담아내다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금련산역갤러리에서 열려



노주련 작가.

올해로 제 20회를 맞은 오늘의 작가상 청년작가상을 수상한 노주련 작가의 수상 기념전이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금련산역 갤러리에서 열려 많은 이가 전시장을 찾았다. 전시장 중앙과 벽면에 금색과 은색의 대형 딱지 큐브가 펼쳐져 있으며, 안쪽 전시장으로 가면 거대한 에어벌룬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전시장에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노주련 작가에게 어린시절 추억이 담긴 딱지는 작품의 의미와 형태를 구성해 내는 모티브가 되어왔다. 처음에는 평면 딱지에서 반입체를 표현하고 박스 형태를 시도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큐브를 변형하며 해체해서 움직이는 오브제와 접목을 시켜 작가만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번 전시 'GOLDEN AGE'는 작가가 수년 전부터 진행해온 '큐브' 시리즈의 완결편이라 볼 수 있다. 이전까지는 큐브라는 외적 형



Open Mirror Cube_151.5x151.5cmx5piece variable installation, Sheets on wood.



Open Gold Cube V_176.4x75.6x4piece, 75.6x75.6x2piece variable installation.

태에 연구하며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딱지의 형태를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어린시절의 꿈과 추억 그리고 성인으로서 성장한 이후의 만들어진 욕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전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벌룬은 이전 전시를 고스란히 기록한 사진과 영상작업을 표면에 실사프린팅했다. 프린팅한 벌룬 작업은 미리 시트 큐브 외면에 비추어져 피

사체를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낸다. 대상을 왜곡되게 비추어 변형되는 모습을 통해 그 내면의 숨겨진 욕구와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7월13일에 열린 오프닝에는 제20회 오늘의 작가상 청년작가상 시상식을 한 후 행위예술가 언덕(한국), 이브게니 제냐(러시아)와 협업한 퍼포먼스로 전시 시작을 알렸다. 그의 큐브 조형물을 배경으로 삶과 죽음, 사랑의 퍼포먼스를 통해 긴장감과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설치미술가로 불리는 노주련 작가는 오랫동안 서예를 배워왔다. 한국화를 전공할 수도



Golden Age I_Ⅷ_140 x 140 x 140cm x 8piece, the printed Cube on light balloon.

있었지만, 색채의 다양성에 끌려 대학 시절 전공을 서양화로 선택하였다.

회화를 전공했지만 조소의 물성에 매료되어 그는 대학원 들어가기 전부터 설치 미술에 대한 구상을 했다. 그는 전공의 경계선을 넘어서며 다양한 장르의 융합을 보여주는 작가이다.

더불어 그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하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노주련 작가는 "부산미술협회는 어렸을 때부터 작업하기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과 지지를 준 단체다"며 "청년 작가상을 수상 받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 생각한다.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미술학박사
개인전 20회, 단체전 100여회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whoami211@hanmail.net

서양화가 장건조, 부산광역시 표창



장건조 작가.

서양화가 장건조는 6월 28일 활발한 창작 활동을 통해 부산미술 우수 단체전에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부산미술협회 감사와 재부흥의미대 동문회 사무국장 등을 맡아 다양하게 활동을 이어왔다. 장건조 작가는 다문화가족, 치매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부산시민을 위로하는 미술 전시 '봄의 향연'을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인으로서 부산 미술문화 발전을 졸업 이후 끊임없이 국내 개인전 10회(1985~2018) 및

우수 단체전에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부산미술협회 감사와 재부흥의미대 동문회 사무국장 등을 맡아 다양하게 활동을 이어왔다. 장건조 작가는 다문화가족, 치매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부산시민을 위로하는 미술 전시 '봄의 향연'을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인으로서 부산 미술문화 발전을 졸업 이후 끊임없이 국내 개인전 10회(1985~2018) 및

부신미술 단체를 찾아서

9

Since 1986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여성 미술단체 「진여류회」 5명의 소수 구성이지만 가족 이상의 유대감으로 엮여

진여류회는 양정 황령산 자락에 위치한 진여고의 출범과 함께 미술부 활동으로 맺어진 선후배의 유대관계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회원들은 부산진여고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면서 각자의 전공을 찾았다. 바쁜 시기에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나누며, 친분을 이어오다 대학 졸업이라는 출발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2018년 진 스물두번째 이야기 숲갤러리에서 단체사진.

1980년대는 여성 미술작가들의 활동이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시기이다. 회원들은 일상의 삶속에서 지속적인 예술이 어렵다는 생각에 오직 작품 활동을 이어가자는 의지 하나로 “진여류회”의 문을 열었다. 그들의 인연의 역사가 되어주었던 진여고의 ‘진여류회’의 이름으로 되었다.

1986년 김현숙, 윤인수, 이옥분, 허덕자, 문혜숙, 성명옥, 최유경, 윤미희 여덟 사람이 모여 그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현재는 세 명의 회원은 개인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윤인수, 이옥분, 김현숙, 최유경, 윤미희 다섯 사람이 각자의 개성이 담겨있는 작품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윤인수 작가는 꽃과 말(간세)을 통해서 서정적인 조형을 지우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남게 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추상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옥분 작가는 자연을 소재로 주변과 어우러진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사물의 표현뿐만 아니라 빛과 그림자에 관심을 두고 수채화의 맑고 투명함으로 담아내어 따뜻한 감성을 섬세하게 표현하고자 한다. 김현숙 작가는 깊은 사색과 과감한 화면 구성으로 추상적인 내면의 세계를 주로 표현한다. 윤미희 작가는 모노톤의 넓은 색면에 자유로운 선과 드로잉에 의한 반추상적 화면을 즐겨 표현한다. 한국화를 전공한 최유경 작가는 한지와 혼합된 재료를 사용하며 연, 새, 꽃 등의 여러 가지 소재가 만들어 내는 질서와 조화를 통해 화면의 다양함을 추구한다.

현재까지 해 수로 35년, 전시는 24회에 이른다. 다섯 명의 회원은 미술작품에 대한 애정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하며 각자의 미

윤미희



여행스케치-따리의 봄 _72.7 × 90.9cm_oil on canvas, 2021.

윤인수



Warking Slowly _116.0 × 45.0cm_oil on canvas, 2021.

이옥분



햇살 좋은 날 _72.7 × 53cm_water color on paper, 2019.

김현숙



고장난 핸드밀 _72.7 × 50.0cm_oil on canvas, 2020.

적 아름다운 예술세계를 펼쳐 나간다.

진여류회(회장 김현숙)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만큼 회원들 서로 간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질책은 서로의 발전에 기록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소수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마음은 남달라 가족 이상의 유대감으로 엮여 있는 단체이다”고 말했다. 진여류회는 끈끈한 관계 속에서 붓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

최유경



Harmony-good day _30x72cm_mixed media on canvas, 2018.

자료제공 진여류회

김중원의 미술이야기 4-5

다시 발견하는 미술

이 칼럼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 장소 등에 숨겨진 미술의 요소들을 재발견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매력적인 미술의 비밀을 발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열정과 고독을 표현한 러빙 빈센트

무더운 여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지금 시원한 맥주가 제격인 시기인 것 같다.

이처럼 별이 빛나는 한 여름밤에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청량감 있는 영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미술가들이 존재한다. 그중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53 ~ 1890)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작가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그의 삶에 있어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의 작품에 관한 열정은 누구나 사랑하리라 짐작한다.



'러빙 빈센트' 영화 포스터.



스튜디오에서 유화로 작업 중인 수십 명의 애니메이터들.



아르망 롤랭의 초상 영화 스틸 이미지.

〈러빙 빈센트 / 2017 / 도로타 코비엘라, 휴 웰치맨 / 95분 / 애니메이션〉은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아생전 그림 800여 점의 그림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이다. 영화에 나오는 그림들은 실제로 반 고흐의 작품을 기반으로 107명의 화가가 2년여의 시간을 갖고 약 6만 2천 점의 유화로 그렸다. 이를 기반으로 2명의 감독에 의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제작 기간 또한 10여 년이 걸렸다. 이렇듯 제작 기간에 걸맞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영화이다.

영화는 반 고흐의 사망으로부터 1년 뒤인 1891년으로 고흐의 편지를 담당하던 우체부 조셉 롤랭 아들인 아르망 롤랭에게 반 고흐의 편지를 그의 동생인 테오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작된다. 마치 추리영화처럼 반 고흐의 그림을 따라 시간의 흐름을 전개하는데 익숙한 작품과 동시에 낯설음을 느낄 수 있다.

영화는 프랑스 남부 아를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반 고흐 그림에서 나오는 마을의 여관, 카페테라스, 미술 재료상 당기, 가세 박사, 마저리 박사, 라부 여관의 주인과 딸을 보여주며 반 고흐의 죽음에 관하여 회상하며 재구성하고 있다.



영화 촬영 현장 스틸컷.

우리는 이 영화에서 익숙한 그림 속에 담겨진 낯선 사실들과 조응하게 된다.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의 작품 이면에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영화가 끝난 후 영화에서 마치 끝내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발견한다. 무엇인가 코로나 시대의 답답한 이면, 혹은 우리가 사는 이면에는 고독과 권태, 외로움들이 존재한다. 어쩌면 빈센트 반 고흐가 느꼈던 감정들이 결국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당기영감의 초상 영화 스틸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공감하는 것은 아닐는지 모르겠다. 화려한 색상과 과감한 붓 터치 뒤의 반 고흐의 열정과 고독의 삶을 엿보며 〈러빙 빈센트〉와 함께 반 고흐의 몽상에 빠져보는 것은 어떠한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말이다.

문화공간 '예술지구 P' 공장창고에서 재탄생한 복합예술문화공간



부산 금정구 금사공단 속 보이는 예술지구P 전경.



창작공간P 제1 전시장.



창작공간P 제2 전시장.

공단 속 예술지구 P

거대한 고가, 공장을 오가는 대형 차량들을 배경으로 독특한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바로 예술지구 P. 이곳은 기존의 공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폐공장이었다. 작은 폐공장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을 하여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해 2013년 12월 24일에 새롭게 탄생했다.

기업과 예술가의 융합을 통한 탄생

파파낙스그룹의 이니셜'P'를 붙인 예술지구 P는 오랜 세월 (주)육성화학의 창고였다. (주)육성화학에서 출발한 파파낙스그룹은 안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금사공단 안에 고가도로가 생겨나면서 파파낙스

그룹의 창고 건물이 대각선으로 잘려나가 되어 활용이 어려워졌고, 창고는 수년간 빈 건물로 방치되었다. 파파낙스그룹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예술가들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방치된 건물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끝에, 오래전부터 교류를 이어오던 지역 예술가들에 무상으로 기부하며, 문화 공간으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후 지금의 예술지구 P가 기업의 지원으로 탄생되었다.

시작은 기업으로부터의 제안이었으나 파파낙스 그룹은 공간운영에 관해서는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는다. 독립적인 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 예술가들이 사업 운영을 꾸려 나가며 기업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술, 사진, 음악 3개의 장르가 한 곳에...

현재 예술지구 P는 금사락 대표 이호섭, 포톤 대표 이동문, 창작공간 P 대표 박은생 3개의 예술단체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부산 경남지부로 이루어져 있다. 공연예술 장르를 맡고 있는 '금사락'은 최고의 악기, 음향, 조명, 방음시설의 공연장 대관운영과 유명 뮤지션 초청공연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탠딩 객석과 좌석 설치시 240석이 가능한 콘서트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아티스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인큐베이팅은 지역 뮤지션들을 공개오디션을 통해 발굴하고,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레코딩 시스템으로 앨범 녹음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까지 제작 가능한 영상편집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 장르를 맡고 있는 '포톤'은 지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오랫동안 자신만의 사진 철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를 재조명하고, 패기있는 신진작가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진인문학 세미나, 직장인 대상 힐링사진강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한다. 입주 작가들에게 시스템의 편의를 제공하며, 외부 작가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촬영스튜디오 대여 및 디지털 입출력시스템을 지원한다. '포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진 인구들이 이 공간에서 통해 함께 시대를 고찰하고 공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미술 장르를 맡고 있는 '창작공간 P'는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미술문화 형성을 위해 설립했다. 2개의 전시실 운영과 작가 레지던시 창작공간 운영이 주요 활동이다. 청년작가 및 기획자 발굴,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작가 아카이브 구축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현대미술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드로잉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작가들로 매해 4월에 선정된다. 선정 작가들은 입주기간(단기 3개월에서 장기 1년)동안 주거용 작업공간에서 예술세계를 펼친다. 평균적으로 10명에서 12명씩 입주한다. 외국작가 3명에서 4명, 타지역 작가 8명 정도 선정된다. 방은 7개 있으며 1층에 작가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비롯한 여러 시설을 지원받

는다.

작가들과 인근 주민 및 관객에게 아낌없이 주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 프로그램과 무료 영화 상영, 근처 어르신들은 동사무소와 협력하여 영정사진,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증정해주는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했다. 예술지구 P는 인근 주민들과 관객들을 즐기도록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처음에는 인근 주민과 공장 근로자들은 예술문화공간이 들어선다는 말에 생소하게 느꼈다. 공장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공간이 들어올거라곤 상상을 못했다. 계속해서 예술지구 P는 다양한 행사로 지역민과 소통을 이어와 인근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예술과 일상이 되었다. 이제는 문화가 생소함이 아니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공동대표 이동문은 "작년 코로나19로 큰 공연은 못하고 있지만, 부산에서 유치하기 힘든 매니아층을 위한 공연과 주민들의 위한 공연을 기획, 행사를 하고 있다"고 예술 문턱을 낮추기 위해 끊임없이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

"누구에게 구애 받지 않고 온전히 작가들의 열정과 자유롭게 예술혼을 펼쳐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예술지구 P'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앞으로도 아낌없이 작가를 위해 도움을 주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예술지구 P
부산 금정구 개좌로 162 육성화학
오픈 : 매일 오전10시~ 오후7시
일요일/공휴일 휴무



2015년 금사락 공연장에서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전인권 공연.



포톤 촬영스튜디오.



2017년 공장속예술놀이터 체험전시에 집중하고 있는 어린이들.



포톤 출력시스템.

칼럼



송만용
미술평론가, 동서대학교수

무더운 오후, 나른한 자의 정신을 깊은 상념을 빠트리는 벨소리가 들려온다. 즉 “부산은 살아있는데...” 이유를 몰라 다시 물으니, 전국 신문을 검색하다 보니, 다른 지역 미술계는 조용한데 부산은 전시가 이어져 열리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나 역시 상투적으로 부산미술은 살아있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렇다면 부산미술이 살아있다면 그 힘은 무엇인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텅빈 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시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숙명일까? 방역단계 때문일까? 지나온 모래사장에 남겨진 발자국을 뒤돌아보듯이 지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로는 도시가 성립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깝고 한국전쟁에서 마지막 방어선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생존이 언제나 먼저였다. 그래서 어릴적부터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라

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성장했다. 이런 척박한(?) 부산에는 보이지 않는 부산미술의 DNA가 있었다.

먼저 토벽동인 등 부산미술의 1세대로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작업본능이 있었다. 그들에 의해 부산의 미술은 꺼지지 않고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부산미술의 국내외적 위상을 위해 인프라(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비엔날레 등)를 구축하였던 70년대 학번의 열정이 있다. 누가 시킨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도 그들은 부산미술에 헌신

하였다. 지금이야 그때는 몰랐다. 그저 선생님과 형님들이 “여기 와서 도와라...”하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모였고 밤을 하얗게 보냈었다.

그렇다면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개인적 이득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저 문화적 불모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절규였다. 부산미술은 애초에 날개가 없었기에 더이상 추락할 것도 없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부산미술은 더 높이 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기에 부산의 미술인은 작업이 숙명이었고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멈추지 않기에 나래를 펴고 세상 끝으로 날아 오르고 싶기에 부산미술은 살아있다. 부산미술은 힘을 갖고 있다.

덧붙여 풍수지리에도 명당이라도 후세의 덕이 필요하듯이, 성장하는 미래의 부산미술들은 부산미술의 DNA를 받아 멈추지 않는 욕망으로 세계로 나아가야만 한다. 레오니다스를 언급하지 않아도 역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성공적인 부산미술을 위해서 부산미술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다. 부산미술의 DNA에서 부산미술의 미래가 있다.

부산미술의 DNA

Close Up 11



이서진 작가

나는 몇 년 전 자연석을 가공하고 그 구멍을 실, 스테인플러 등으로 꿰맨 듯 착시를 일으키는 작업을 하였고, 결국 판매까지 이루어졌다. 그 둘 작업은 세상에 복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이란 수식어를 가지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작업으로 이미지와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팔려버린 원본에 대한 복제 욕구에서 시작된 호기심으로 접근한 3d 프린트기는, 예상 밖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1900년대 초반에 종결을 고하였던 아우라라는 개념을 소환시키며 나의 그 ‘유일했던’ 작업에 대한 생각들과 비교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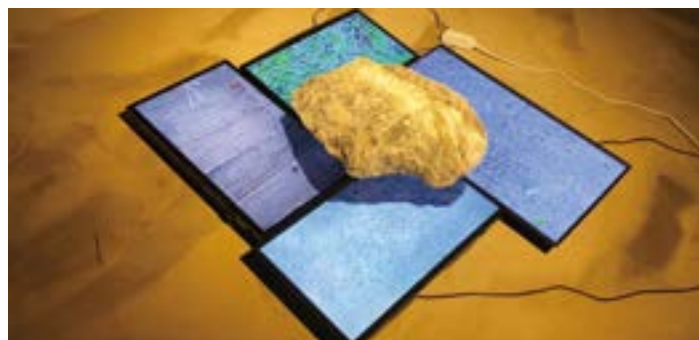
원본과 복제물의 상하관계, 그 과정 사이에서 생겨난 제3의 물질, 복제를 계속할 때 생겨나는 상하관계의 순서 혼동으로 인한 관계 배열의 흐트러짐, 이로 인한 서열관계의 파괴와 새로운 원본이 파생되는 네트워크식 관계, 이제는 여러 일상생활과 예술에서도 3d 복제기가 일반화된 시점에서 점점 모호해지는 그들 간의 경계 속에서 생겨나는 변수, 특이점들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를 느낀다.

원본에 따르는 부수적이고

원본을 재가공, 스캔 후 복제 그리고 또다시 스캔 후 복제, 원본과 복제품, 그리고 그 사이에서 파생되는 제3의 물질, 상, 하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예기치 못하게 만들어진 제3의 물질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



새로운 관계_가변 설치, 단체별영상(3분24초)_Mixed Media_2020.



영향_가변 설치, 다채널영상(10분01초)_Mixed Media_2019.

가변적인 형태이지만 거짓된 것은 아닌 그림자, 대상의 실존 그림자를 제거하고, 미디어를 통해 대상의 그림자를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하여 존재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본과 그림자, 미디어와의 의미를 재고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에서 물질의 원본이란 무엇일까?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무언가의 의문점이 생기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 가는 과정으로부터 모든 건 바뀔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상황이든 변수에 주의를 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변수나 특이점들이 진정 내가 찾던 답이면 어떨까? 이러한 점들이 작업에서 나의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이다. 정해진 답은 없다, 작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본 그 자체를 돌아라 하자, 그렇다면 돌을 사진으로 찍어낸 그 사진은 복제인가? 아니. 그 사진은 자체에 원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루트를 무한적으로 반복한다면 원본의 가치가 생길 것인가, 가장 원초적인 오브제인 돌과, 원본의 아우라를 점점 희미해지게 만드는 새로운 신 과학기술들, 그 두 가지를 나만의 방식으로 활용하여 스스로에 대한 해답을 풀어가려 한다.

fukmodernart@gmail.com
경성대학교 조형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재학중

‘무더위 대피전’ 더위를 날려버리자!

용두산 미술의거리 입주작가와 부평아트스페이스 입주작가 한자리에 모여

건물 외벽 간판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단장한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용두산 미술의거리, 부평아트스페이스 입주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무더위 대피전’ 전시를 열었다.

‘무더위 대피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와 무더위로 힘겹게 살아가며, 단조롭게만 느껴졌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관람객에게 즐거움과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기획했다.



부평아트스페이스 갤러리 전경.

이번 전시는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 주제는 ‘온김에 그려보기’이다. 용두산 미술의거리 입주작가 6명과 부평아트스페이스 입주작가 3명 총 9명의 청년작가가 참여해 서양화, 일러스트레이터, 도자 등 장르 작품 39점을 선보였다. 2부는 ‘본김에 픽미업’ 주제로 114여점의 아트상품이 전 시장을 가득 채웠다. 또한, 작가의 작품을 따라 그려보는 체험활동과 아트상품 및 소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용두산 미술의거리 입주작가 류동균은 “남포동 지역에 위치한 부평아트스페이스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많은 위치적 특성이 있다”며 “일반인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작가의 작품을 감상, 체험하며 미술을 즐기는 전시가 되기 바란다”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부평아트스페이스 입주작가 서수연은 “무겁지 않는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오셨던 분들이 전시를 통해 무더위 대피를 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며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상국 영상설치분과 회장, 국제학술지에 논문 발표

와이즈유 영상대학교 Art & Tech대학 게임VR학부 임상국 교수가 SSCI·SCIE급 국제학술지 헬스케어(Healthcare) 8월호에 E스포츠를 분석하고, 가상현실 실감형 디바이스의 평가틀을 제안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는 E스포츠와 가상현실(VR) E스포츠를 분석해 헬스케어형 실감콘텐츠를 게임으로 제작하고 사용자를 위

한 가상현실 실감형 디바이스의 평가틀을 제안했다.

그는 “VR 기술은 분야 간 융합과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문만큼 다른 분야에 접목하고 방법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예술·융합적 관점에서 인문학적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40년 도예 흔적을 되짚어 보다

1980년~1994년 자연이야기
1995년~2008년 관념의 세계
2009년~2020년 생명의 원형
김현식 작가의 도자세계 속으로



김현식 작가

자연의 순리를 추구하는 작가 김현식 회고전이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열려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에서 1980년~1994년 자연이야기, 1995년~2008년 관념의 세계, 2009년~2020년 생명의 원형이란 주제로 했던 과거부터 근작 작품들을 한 공간에 모아 선보였다. 작가가 도예가로 살아온 지난 40년



나무의 꿈_450x110x450_2020.

그의 작품은 자연에 깃든 설화 혹은 민간신앙에 근거한 한국적 사상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한국미의 현대적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작업을 통해 공간을 조형화시키고 확장해 나간다. 한국적 정신의 도와 선사상, 자연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갖는 원초적 본능을 작품으로 나타낸다. 그는 기계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건조하거나 흙의 성질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해 전통 도자 굽는 방법을 이용한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과 염원을 느낄 수 있는 소재 새와 물고기를 매체로 다루고 있다. 자연 속에서 꿈을 키우며 작가 활동을 병행하며 삶을 살아왔다.

을 되짚어 보는 전시이다. 그는 점토로 자연을 빚는 중견작가다. 대학교 2학년 봄 어느 날 점토가 주는 부드러운 질감과 자유로움의 오묘함에 매료되어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교수의 꿈을 키우며 작가 활동을 병행하며 삶을 살아왔다.

적으로 건조하거나 흙의 성질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위해 전통 도자 굽는 방법을 이용한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과 염원을 느낄 수 있는 소재 새와 물고기를 매체로 다루고 있다. 자연 속에서 주는 기하학적 형태의 덩어리와 추상적 형태의 좌대를 결합시켜

작가의 작품이 탄생한다. 그는 형태, 색, 질감 등 다른 요소들을 조합, 변주하여 최상의 조형미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다. 점토 고유의 물성과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진 질박한 자연석과 함께 어우러진 새와 물고기는 세월의 깊이와 서정성을 더하고 있다. 형태적 요소와 개념적 요소의 이질적인 세계를 모아 작가만의 풍부한 미적 아름다움을 펼쳐낸다. 젊었을 때의 매료되었던 한순간의 감정이 지금까지 작가의 삶의 모든 부분이 되어 점토로 가득하게 차지하고 있다. 그때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서사적이고 추상적이며 형상적인 김현식 도자세계가 없었을 것이다. 35년간 대학교육을 해온 작가는 “40년 동안 거처온 작업 과정을 글로 남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나무의 꿈4_470x100x260_2020.



묵상6_350x140x400_2018.

어 젊은 작가들도 몇 십년 뒤 자신의 작업을 정리하며 생각을 다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부산 도예 흐름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전시 소감을 말했다. 김현식 작가는 “부산 도예 40년 작업 과정을 글로 남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자연 속 나의 내면을 보여주다

관물청심(觀物聽心) II
금련산역 갤러리에서 열려 화조화를 통해 조형적으로 표출하다



이민한 작가

풀어낸다. 그는 동양적 가치관과 사상에 기반을 두며 독창적인 작가만의 한국화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작가의 화폭은 고요한 분위기 속 먹의 담백함을 살려, 여백과 절제의 미가 돋보인다. 이민한 작가 개인전 '관물청심(觀物聽心)II'이 금련산역 갤러리에서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려 호평 속 막을 내렸다. 작가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및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 후 현재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작가로서 활발한 작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지난 2019년 중국 충칭(重慶)에서 연구년을 통하여 작업한 것을 포함해 10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을 선보여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민한 작가는 새롭다는 것보다 우리 고유의 가치관과 특색이 드러나는 전통을 바탕으로 삼아 깊이를 가진 세계를 추구한다.

수묵담채로 그려진 그의 작품을 보면 정적인 점묘법, 한국적 절제미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수묵 작품 곳곳에서 보이는 선명한 색채가 포인트를 주듯 생동감을 부여한다. 화선지 위 농담을 달리 한 붓질은 담대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하고 정교한 섬세함으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작가는 이번 전시 '관물청심(觀物聽心)II'에서 화조화(花鳥畫)를 통해 자신만의 의미를 조형적으로 표출했다. 첫째, 자연을 감상하고 자연에 흡수되어 자연이 내포하고 있는 조형과 감성적 요소에 몰입하여 자연에 다가가려는 '자연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전통적 사군자나 소나무와 같이 자연의 대상을 대입해 나를 표현했다. 자연이 아닌 인간의 내면을 나타내는 '인간으로서의 자연'을 보여준다. 셋째, 자연물처럼 보이지만 실재하는 자연은 아니며 나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했다.

작가는 “자연은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도 상상적 조형공간으로 생성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번 전시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전했다.



섬으로의 여행_144 x 245cm_장지에 수묵담채, 2019.



기다림-2019-1_44x97cm_화선지에 수묵담채, 2019.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종이세계에 빠져들다

오랜시간 '종이(paper)'에 대한 탐구로 이근희 작가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다



이근희 작가

종이위에 한겹 한겹 자유롭게 쌓아올린 신문지들이 보는 이의 시선을 잡는다. 그리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를 깊이 속 빠져들 것 같은 집중을 유발한다.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서울아트스페이스에서 한국 전통 재료인 종이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이근희 작가 '소곤소곤 말하는 종이(Talking paper)' 개인전이 열렸다. 이근희 작가는 20년 여년의 시간동안 한지에서 오는 미묘한 감각에 매료되어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무궁무진한 재료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작가의 주관과 사고를 확장해 왔다.

그는 무형문화재에 찾아가 직접 한지 제작 과정을 몸소 익힐 정도로 재료 한지 매력에 푹 빠져있었다. 무형문화재 제17호 한지 장인 안치용으로부터 공수해 온 수제 한지는 캔버스와 같은 작품의 밑바탕이자 그 자체 물성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그의 작품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작업의 주제가 되는 재료들을 함께 접목시켜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 나간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문을 통해 점점 사라져가며 변화하고 있는 기록 매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SNS로 연결되어 소통되고 있는 현대적 상황들을 조각낸 신문을 통해 조형적으로 배치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한다. 단 순히 신문을 스트립 모양으로 오린 후 풀로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조각들을 물에서 한 번에 떼내는 기법으로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흠뻑 젖어 한지로 옮겨 붙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 닥종이와 신문지가 마르는 과정에서 물을 흡수하여 표면을 만져도 한지 위에 올려진 신문지의 두께감을 느낄 수 없다. 같은 종이이지만 다른 성질을 가진 닥종이와 신문지는 하나로 결합하게 된다.

그는 “매체로서의 종이를 해체하여 물질로서의 종이로 재구성하면서 의미 없는 기호나 물질적 흔적들이 서로 비껴나고 미끌어지게 하면서 드러나는 공간에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작업에 대해 설명했다.

“종이 자체가 물감이 되며 붓이고, 캔버스이고 연필의 기능을 한다. 나에겐 종이 하나로 점, 선, 면을 표현하여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고 종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Landscape_74 x 122cm_수제한지 위 혼합재료, 2021.



글을 쓰다_120 x 240cm_수제한지 위 혼합재료, 2021.

전통과 현대 한국화의 정체성을 담아내다

제29회 부산한국화전
회원 100명과
비회원 30명 출품
특별상 석재 박기옥 수상



풍요로운 부산한국화전을 즐기고 있는 관람객.

사)부산미술협회가 후원하고 부산한국화협회(부산한국화전 운영위원회)가 주최한 제29회 부산한국화전이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부산시민회관 1,2 전시실에서 열려 성황리 막을 내렸다.

올해가 29번째로 이번 부산한국화전에는 부산미술협회 한국화분과 원로 회원 이재진, 김수길, 이정근, 장익만, 최추자 5명을 포함한 회원 100명과 비회원 30명이 참여했다. 1인당 30호 이내 1점씩, 총 130점의 작품을 출품해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원로·중견·청년 작가 등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많이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다.

29회 부산한국화전은 전통과 현

대 한국화의 정체성, 새로운 한국화의 방향성을 모색 및 탐구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이다. 130명의 작가들은 선, 여백, 농담 등 다양한 기법과 한국화를 바탕으로 수묵화, 채색화, 민화, 현대 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작가만의 작품 세계를 선사했다.

오늘이라는 시대성을 잘 반영하고, 전통적인 필묵과 현대적인 미

감이 어우러져 새로운 표정을 더하는 전시로 보는 이를 매료시켰다.

이날 오프닝에는 2021년 부산한국화 특별상 수상한 석재 박기옥 작가의 시상식 행사를 했다. 부산한국화 특별상은 심사를 통해 68세 이상의 회원 중 작업에 대한 열정과 작품성, 부산미술협회 활동을 바탕으로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부상으로 금2돈을 수여한다.



김운규_심안의 흐름 _60.6X60.6cm_아사천에 아크릴 혼합물감, 2021.



김은숙_빌딩 숲 _60X73cm_화선지에 먹, 2021.

부산한국화전은 젊은 작가들과 한국화 애호가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제공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작가 및 미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저변 참여 확대로 침체된 부산 한국화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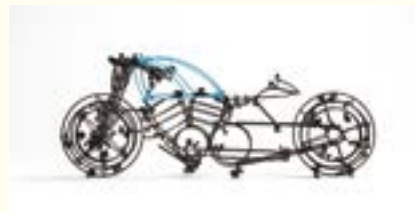
부산한국화전은 1992년을 시작으로 한국화 고유의 전통을 살리면서 현대 미술을 조화롭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부산한국화의 전통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미술협회 한국화분과 김현철 회장님은 “이번 오프닝에 원로 작가 김수길 선생님의 색소폰 연주와 천식연 선생님의 오키리나 연주를 같이 병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하게 되었다”며 “내년에는 부산한국화전 30회를 맞이해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더욱더 성황리에 전시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내년엔 많은 전시에 많은 참여와 기대를 부탁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자료제공 부산미술협회 한국화분과

다채로운 현대조각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다

부산조각가협회
'지역을 넘어 세계로Ⅷ'
서울, 경기도, 대구
지역조각가 초대



김성민_탈출구(WAY OUT) _80 x 28 x 35cm, 2018.

부산조각가협회(회장 문병탁) 제21회 협회전 '지역을 넘어 세계로Ⅷ'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어 막을 내렸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진행하고 있다. 이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부산의 작가들과 다른 지역, 해외 작가들의 작업의 특성도 볼 수 있는 전시라 꾸준한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산시민들에게 조각작품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해외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힘들어져 제20회 협회전에 이어 올해도 국제교류보다는 지역을 넘어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부산 출신 작가들의 각양각색 조각작품으로 전시장을 풍성하게 메웠다. 장상만, 김기영, 조란주, 김정명, 홍찬일, 조은필 등 국내외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총 50명 부산 지역 작가들을 비롯하여 서울(김병규, 박성배, 송현규, 장수빈, 박지선, 김지영) 총 6명과 경기도(정국택, 강인구, 장성재, 송현호, 서동익, 박근우, 서승원) 총 7명, 대구(방준호, 김현준, 신동호, 김봉수, 임영규) 총 5명 등 전국을 무대로 활발한 작업을 펼치는 다른 지역 작가들을 초대해 전시를 빛냈다. 작가들은 함께



김수_stand by me _55 x 70 x 110cm, 2014.

작품을 교류함으로써 현대 조각의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올해 부산조각가협회 '지역을 넘어 세계로Ⅷ'는 부산조각가협회 회원들의 작품 53점과 타지역작가의 작품 15점 등 지역색이 묻어나는 독특한 조형미를 조각 작품으로 녹여냈다. 작가들마다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내며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풍요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부산조각가협회 문병탁 회장은 “조각작품들 로만 이루어진 전시이기에 현대조각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부산조각가협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전시를 통해 부산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과 타지역 작가들의 교류와 소통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자료제공 부산조각가협회

부산현대작가협회, 다양한 시선으로 소통하다



오늘의 시선전과 작은 음악회 콜라보.

한자리에 전시, 작은 연주회, 강연 등 종합예술 전시 열어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변화된 모습이 지금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공간을 마련했다.

부산현대작가협회(회장 박순곤)는 '오늘의 시선전과 작은 음악회를 콜라보 하는 행사를 7월 5일부터 7월 27일까지 523콘서트홀 갤러리 2, 3층에서 열어 막을 내렸다.

협회는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전을 꾸준히 열어왔다. 이번 전시는 매년 열렸던 이전의 정기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한 공간에서 전시와 공연, 강연 등 다양한 각도의 전시를 기획해 수동적인 전시의 개념에서 벗어나 종합예술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시각의 전시를 새롭게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현대미술의 중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산현대작가협회 회원들과 울산현대미술작가회 회원들이 참여해 총 65점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들은 평면(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판화, 영상, 사진), 입체(조각, 설치)

등 각자의 시선으로 오늘의 사회적 현상을 재해석하여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로 다양하게 표현했다. 많은 부산지역 주민이 작품을 감상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오프라인 전

시와 함께 온라인 전시를 진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언택트 전시라는 새로운 전시를 제시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정일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젊고 열정적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코리안뮤직앙상블이 참여해 현악5중주와 성



다양한 작품으로 가득찬 전시장 풍경.

악 공연을 선보여 코로나19로 인한 작가들의 현실과 고통을 표현하며, 새로운 방향에 대한 탐색을 모색했다. 미술과 또 다른 음악 예술 장르 관점에서 관람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었다.

미학 철학박사 민병일 교수를 초청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술가의 입장과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생각하며 강연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사회와 예술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자료제공 부산현대작가협회

전시리뷰

최예원 초대전 '움(Theoria)'
6.1-7.25 거제도 해금강테마박물관



인간의 영혼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전시. 작가는 누구나 꽃피우는 시절이 달라도 움으로 시작해서 고운빛으로 피어나 진솔함을 가득 담은 순수함으로 모든 일이 활짝 꽃 피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다. 알록달록한 색과 자유로운 붓터치로 작가만의 세계를 표출해냈다.

신진작가지원전 'Brilliant-찬란하게 빛나는'
7.1-8.8 갤러리 아트숲



팬데믹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하루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희망 이야기를 담아냈다. 자신에 대해, 예술에 대해, 나아가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김성수, 다솔, 임주원, 황혜영 4명의 작가들은 진지하고 긍정적이거나 철학적인 고민을 그들의 예술세계로 풀어냈다.

최시복 칠예展
7.7-7.15 공방갤러리



최시복 작가의 14번째 개인전이 공방갤러리에서 열렸다. 강렬한 붉은색 바탕에 문양을 새겨 금박이나 금분을 감입한 기법으로 전통칠예를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은 전시이다. 오랜 전통에 현대를 입힌 뉴 미니멀리즘의 조형미와 함께 모든 형상에는 도상학적 황금비를 담아 조형예술로 표현했다.

부산연목회
7.20-7.25 금련산역갤러리



부산 화단을 끌어오신 원로, 중견 한국화가 15명이 참여한 제17회 부산연목회 회원전이 금련산역갤러리에서 열렸다. 한국의 전통성과 작가들만의 개성이 담겨 있는 작품이 동시에 표현되어 시선을 끌었다. 회원들은 꾸준히 열정적으로 창작 세계를 펼쳐오고 있으며, 새로운 한국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정쌍념 초대전 '연꽃 이야기'
7.29-8.19



연꽃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연꽃의 기운까지 내면의 거울로 투영시키며 밝은 영혼의 결로 우주의 변화 원리를 화폭에 담아내어 작가의 창작세계가 드러난다. '연꽃 이야기'를 보면 정이 느껴져 따뜻한 온도와 편안함이 전해진다. 지쳐있는 현대인들을 잠시나마 위로하는 전시이다.

오수희 개인전 '항기속으로'
8.9-8.15 부산시청 제2전시실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나비와 새, 부엉이, 꽃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전시. 작품 속에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화려하고 강렬하며 행운과 행복과 같은 밝은 기운이 펼쳐진다. 작가는 힘든 시국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보는 이들이 삶에 행복과 환희가 되기를 염원했다.

이율선 개인전 '도시와 사람-2021.알아차림'
6.14-7.3 씨나갤러리



오프라인, 매스커뮤니케이션, SMS 등을 통해 정보와 타인과 자신의 일상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밤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끝이 없는 내면의 무의식 세계를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는 시간을 갖길 바라며 작업을 펼쳤다.

추상수채 3인 초대전
7.5-8.5 갤러리 골목



경성대에 위치한 문화골목 갤러리에서 회화 작가인 조규철, 김화주, 박준희 3명이 모여 전시를 열었다. 3명의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화면에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분명한 예술세계를 구축해 작품 속에 심도 있게 담아냈다.

이소연 개인전
7.8-8.15 조현화랑



현대인들이 사회적 관계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는 내밀한 상상력과 판타지를 꺼내어 확인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시. 이소연 작가는 자화상을 그리며 자신의 내면세계를 회화로 표현한다. 하지만 모두 동일한 얼굴 표정을 한 그의 자화상들을 통해 표정에서 읽히는 심리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의도한다.

summer vacation
7.20-8.20 갤러리 마레



휴식과 재미를 주제로 5명의 작가가 모여 시원하고 경쾌한 작품으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모태의 원형적인 모습을 추상과 구상으로 표현하는 에밀리영. 동물을 통하여 생명의 기운, 치유의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김석영. 노닐다 주제로 즐거움을 경쾌하게 표현한 태우. 정감이 돋는 조각가 김원근. 생명력과 에너지를 표현하는 김창일.

이근희 개인전 '푸어링아트'
8.5-8.12 국제지하상가 미술거리 전시실



캔버스 위로 형형색색 물감을 쏟아 부으며 꽃, 새, 파도, 계곡 등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작가는 이번 작업을 하면서 마치 우주나 심해에서 자유롭게 유평하고 있는 듯한 생각에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한다. 작가 스스로에게 치유와 행복감을 준 시간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류동필 개인전 '기억, 그 서정에 대하여'
8.9-8.22 이젤갤러리



류동필 작가는 돌과 나무 그리고 램프라는 매개로 빌려 그의 많은 기억들을 찾아내고 다가올 기억을 상상해 나간다. 그는 불빛을 보면서 희망을, 나무를 보면서 고마움과 편안함을, 돌을 보고 무생물의 존재성과 소중함을 그리고 자연과 우주의 이치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태훈 개인전 '어긋 맞는'
6.24-7.25 부산 프랑스 문화원



이태훈 작가는 어중간하게 걸쳐있으면서, 체계가 없는 듯 혼재된 가운데서 어찌든 들어 맞는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을 사유하고 발견하는 작업을 한다. 그는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그토록 맞추려 하고 어긋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2021 성원아트갤러리 기획 초대전 '극사실의 세계로'
7.6-8.7 성원아트갤러리



극사실(하이퍼리얼리즘)을 추구하고 있는 작가 김수미, 김재현, 도진욱, 이은우 4명이 참여한 전시가 열렸다. 극사실 작품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현대사회의 사진 기술을 뛰어넘어 사물을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확장하여 그려냄으로써 보는 이의 긴장감과 흥분감을 자아냈다.

오브제후드 기획전시 'Dear my blue'
7.10-8.15 오브제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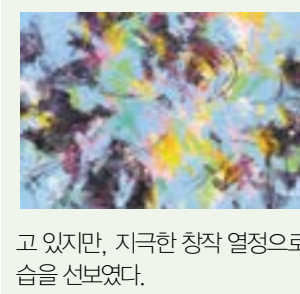
오브제후드에서 윤종주, 이채, 도예가 김민선 세 명의 작가와 함께 기획 전시가 열렸다. 'BLUE'의 이미지를 자신들만의 언어로 표현한 세 작가의 작품을 통해 현대인들이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치지고 어두운 블루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다채로운 푸르름과 희망을 갖길 바랐다.

엔조 'RETRO'
7.21-8.9 갤러리 카린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전시. 작가의 추억과 향수를 담은 두 가지 시리즈를 선보였다. 작가는 작품의 형태, 색상, 스토리, 좌대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작품에 담았다. 작가는 평면과 입체적인 형태의 플랫폼에 컬러풀한 색상을 통해 시대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제37회 대한민국남부국제현대 미술제 'Untact Live'
8.6-8.17 갤러리조이



국내외 작가 200여명이 참여하여 항구도시 부산에서 코비드 시대상황을 대변하는 주제로 현대미술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갖기 위한 전시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들은 세상은 불투명한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만, 지극한 창작 열정으로 꾸준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임수정 개인전 '표리부동'
8.13-8.19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가로 4미터 세로 3미터의 대형작업과 함께 18여점을 선보인 전시.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과 다른 타인을 의식하며 사회구성원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임수정 작가는 현실보다 이상의 물건을 욕망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인물채색화로 담았다.

전시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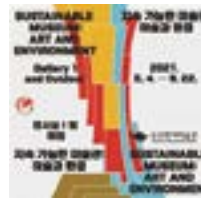
부산미술은 미술협회 회원님들과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격월로 월초에 발간되는 부산미술은 회원님들의 귀중한 전시소식을 기다립니다. **발간 전월 17일까지** 전시소식을 부산미협으로 보내주시면 다음달 발간되는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bfaa2015@hanmail.net : 전시명, 작가명(단체전일 경우 참여 작가명단), 전시기간, 갤러리명, 연락처, 작품 이미지(저화질 게재 불가/파일 제목 캡션 필수), 전시 주제 또는 작가의 한마디를 담은 1~2줄의 문장]



4.16-11.19
사라지다, 살아지다
홍티아트센터



4.23-9.12
이토록 아름다운
부산시립미술관 본관 3층



5.4-9.22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
부산현대미술관



5.18-10.10
심연(深淵)의 상상(想像)
국립해양박물관



5.21-10.17
2021년 소장품전: 감각의 문법
부산현대미술관



6.28-10.10
매그넘 인 파리
부산문화회관



7.1-12.31
마중나온미술
사하구 예방접종센터



7.24-9.4
LOCAL TO LOCAL
오픈스페이스 배



7.26-10.16
임준영 '늘 그라하트'
bmw포토스페이스



8.1-9.30
강찬모 초대전
갤러리 더 코스 앤 감넷과



8.3-9.30
관심 없는 풍경
부산도서관



8.3-9.30
정담 김영희 초대개인전
해라컨트리클럽



8.6-9.12
박진아 '휴먼라이트'
국제갤러리 부산점



8.11-9.12
The 4th Hot Summer展- Art Market
갤러리 아트슌



8.11-9.16
5인 그룹전 '늘 그 자리에 있는 선물 같은 너'
유진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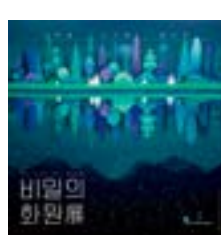
8.13-9.10
도시 in 서동
서동예술창작공간 1층 갤러리



8.17-9.7
ARTsBRIDGE - 함께할 시간들展
복합문화예술공간 MERGE



8.22-9.2
김기철 도예전
갤러리 마레



8.24-10.2
그룹전 '비밀의 화원'
부산 아트스향



8.28-9.5
하고 싶었던 환갑 개인전
갤러리 화인



8.31-10.3
이기주 테라코타전 이기주 미술관
산목미술관



8.31-9.13
천경자 개인전
구미 藝(에)갤러리



9.1-9.12
김민경, 우정이 섬유조형전
갤러리조이



9.1-10.8
천광엽 회화전 '옴니(Omni)의 세계'
데이트갤러리



9.3-9.8
윤수미 개인전
해운대 문화회관



9.4-9.11
청사 淸砂 'HAPPY COLOR LANGUAGE'
갤러리마레



9.4-9.22
2021 투데이아티스트
리빈갤러리



9.10-11.17
이명호 '매뉴얼-MANUAL'
소울아트스페이스



9.14-9.26
제17회 송혜수미술상- 김남진
금련산역갤러리



9.23-9.30
김정수 개인전
이젤 갤러리



9.24-10.31
임근우 초대전
갤러리조이



10.16-11.14
2021 바다미술제 '인간과 비인간: 이상블라주'
기장 일광해수욕장

부산갤러리 전시소식

'부산갤러리'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와 후원하고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가 운영하는 전시공간입니다.



9/1~9/6
변영숙 개인전



9/8~9/13
박형필, 최혜숙 개인전



9/29~10/4
구상작업미술가회 전



10/6~10/11
양석대 개인전



10/13~10/18
윤순호 개인전



10/20~10/25
김은미 개인전



10/27~10/31
이지현, 김찬관 개인전

부산미술 등록번호 부산남.라00005

- 발 행 인 : 박태원
- 발 행 처 : 부산미술협회 (사) 한국미술협회 부산광역시지회
- 편집위원 : 김성현 · 김중원 · 정연은 · 진수아
- 편집기자 : 이유정
- 주 소 :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402호
- Tel. 051) 632-2400 Fax. 051) 644-4183

제 47회 전국공모 부산 미술 대전



2021년도 제47회 부산미술대전
작품공모 및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화/서양화/조각/공예/디자인/서예/판화/학술·평론/영상·설치
문인화/수채화/민화·불화

원서교부 2021. 6. 21.(월)~8. 20.(금)

작품접수기간, 장소 및 시간 ※가접수는 불허함

- ▶ 1차 작품사전접수 2021. 10. 21.(목)~22.(금) • 부산미술협회 (접수시간 10:00~17:00)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판화, 학술·평론, 영상·설치, 수채화, 민화·불화
- ▶ 2차 작품접수(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함) 2021. 11. 8.(월) • 부산문화회관 (접수시간 10:00~17:00)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판화, 수채화, 민화·불화

작품접수처 1차 부산미술협회, 2차 부산문화회관

- ▶ (디자인(부문), (서예(부문), (문인화(부문), (학술·평론(부문), (영상·설치)는 아래의 주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http://www.bfaa.or.kr>) 접속사실

출품수 1인 2점 이내 (서예, 문인화 1인 2점 이내)

접수비 1점 60,000원 / 2점 100,000원 (디자인, 서예, 문인화는 별도요금 참조)

사상내역

구분	종류	인원	내역
대-상	한국화, 서양화(조각, 비구상, 판화, 조각, 수채화, 민화·불화)	1명	상금 1,000만원 및 상품 (작품예입금 포함)
	공예	1명	상금 300만원 및 상품
	디자인	1명	상금 300만원 및 상품
	서예	1명	상금 300만원 및 상품 (작품예입금 포함)
	문인화	1명	상금 500만원 및 상품 (작품예입금 포함)
부산문화대상	조각 및 기타	1명	상금 300만원 및 상품 (작품예입금 포함)
최우수상	학술·평론	1명	상금 100만원 및 상품
	영상·설치	1명	상금 300만원 및 상품
우수상	각 부문 1명	10명	상금 100만원 및 상품
	학술·평론	1명	상금 50만원 및 상품
	영상·설치	1명	상금 50만원 및 상품
특별상	후원처 공청시	1명	1명 1명
특별	각 분야별	각 분야별	상당
합계	각 분야별	각 분야별	상당

사상식 일시장소 2021. 11. 19.(금)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문의처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사무국 TEL.051-632-2400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수로 78 (대연3동) 부산예술회관 4층 부산미술협회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 www.bfaa.or.kr 에서 참조 바랍니다.

전시장 차주명: 차하철 2호선 대연동역 하차
5번출구로 나와서 유엔 교차로쪽으로 도보 10분거리
찾아오시는길 44층: 51번, 68번, 134번, 138번 부산문화회관 하차



2021. 11. 15월 - 12. 4토

개막식 11.19(금)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동로76번길 1

|주 회| 부산광역시 부산미술협회

|주 관|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

|특별후원| BNK 부산은행

|후원| 부산예술문화재단(주)부산연예

부산일보, 부산매일, 부산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THE 47TH GRAND ART EXHIBITION OF BUSAN

* 본 간행물은 2021년 부산광역시비를 일부 지원받아 제작합니다.